



젓가슴 수난시대

이유명호/남강한의원장, 대한여한의사회 부회장

빨

래를 개다가 딸애의 '브래지어'가 눈에 띄었다.

———
 웬다구나!!! 면도칼을 들고 쇠와이어가 들어 있는 거드랑이 쪽 모서리를 3밀리쯤 꺾었다.

지름 12센티 반달 모양의 '형상기억합금'이라는 쇠심을 잡아 빼버렸다. 터미네이터의 재료를 연상시키는 이물건의 용도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

〈유방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처지는 것을 막기 위해 브래지어의 속에 설치한 쇠구조물〉이다. 덧붙이자면 속에 담긴 내용물의 구조를 기억해서 원형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왜 젓가리개를 하는가

요즘 모델은 '노브라'로 패션쇼에 출연하여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걷는다. 나의 경우에 브래지어의 목적이 '처집 방지' 보다는 오히려 젓꼭지가 옷 밖으로 도드라 지는 것이 남사(?)스러워 어쩔 수 없이 한다. 다 있는 젓꼭지를 없는 척 가리나라도 남들이 야하다고 생각하니까 생고생이다. 겨울엔 혈렁한 옷속에 노브라로 다니고 여름엔 반창고를 넓적하게 붙이고 셔츠를 입기도 한다. 떼어 낼 때 무지하게 아파서 그렇지 참 편리하고 시원해서 좋다. 문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꼭 브래지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안하면 처질 것이라고 잘못 믿고 있는데 있다. 게다가 여학생들이나 젊은 여성들은 허전하다고 잘 때도 끄르지 않는다고 한다. 남성들은 뺨뺨한 셔츠칼라와 벡타이로 사시사철 목을 즐라매고 살며 여성들은 쇠브라로 가슴을 동여매고 사니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쇠브라의 죄목을 낱낱이 고한다.

요즘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 여자 환자가 많다.

심장이 나쁜 것도 아닌데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고 숨을 몰아 쉬질 않나 소화가 안되고 헛구역질이 나질 않나. 목에서 가슴으로 뭐가 막힌 것 같고 음식이 잘 안 내려 가는 것 같고 속에서 조이는 느낌이 있기도 한다. 또는 젓가슴 아래 늑골을 따라 띠처럼 돌아가며 아프기도 하다. 물론 다른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브래지어 속에 들은 U혹은 C자 모양의 쇠심이 주범 내지는 공범이라는 확신이 든다.

첫째, 갈비뼈와 횡격막은 호흡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쇠심'이 방해한다.

둘째, 쇠브라를 하면 깊은 숨 대신 얇은 숨만 할딱거리게 되니 심폐기능이 약해진다.

산소부족 운동능력저하 체력약화로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셋째, 양 유두의 중간에는 심장의 반응점인 '전중혈'이 있는데 스트레스와 울화병에 통증반응이 나타난다. 쇠브라가 특히 전중혈의 기를 막히게 한다.

넷째, 금속을 우리 몸에 착용하면 방전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빠진다. 쇠브라도 우리의 기운을 빼고 있다.

다섯째, 몸의 상체와 하체의 기는 순환해야 하는데 쇠브라는 이 기혈 흐름을 차단한다.

이렇게 답답한 브래지어를 하는 것만도 신체적인 스트레스인데 쇠심까지 넣은 브라를 하라고라? 쇠와이어는 유방과 젓샘을 압박하는 고문 장치이다.

정조대가 사라진지 오래건만 아직 해방되지 않은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사회적 억압의 증거이기도 하다.